

열린마당

# 대한민국이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이 되는 그 날까지!

## -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과장 / 최 지 영

제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참가 및 연수를 위하여 일본에 다녀왔다.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의 지원으로 한 센터에서 한 명만이 참가 할 수 있었는데 운 좋게 내가 가게 되었다.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 한구석에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많이 공부하여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잘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9월 2일 떨리는 첫날이다. 우리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모였다. 350명기량이 탑승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실내가 5층으로 되어있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대한 카멜리아호에 올라탔다. 세월호 때문에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올라타며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은 확 트인 바다를 보는 동시에 사라져 버렸다. 배에서 온천을 해 보았는가?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창밖 망망대해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란다.

9월 3일 아침, 무사히 일본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히타로 이동했다. 도쿠가와 막부시절 작은 에도라 불렀던 상도(商都) 히타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통거리를 거닐었다. 소박한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웬지 모를 편안함을 안겨주는 작은 도시였다.

그리고 물의 도시 야나가에서 뱃놀이를 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탓에 우리 모두 냄새나는 재활용 우비를 입고 우산을 짊어지고 물에 빠진 생쥐마냥 처량하게 앉아있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던 일행들도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접하니 한결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비에 젖은 버드나무가 우거진 뱃길도 운치가 있었지만 일본 뱃사공 할아버지의 구수한 한국노래에 흥과 멋이 더해져 한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장대비를 뚫고 버스를 타고 또 이동했다. 피곤했는지 가이드의 설명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기린 맥주공장을 도착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렸다. 좋은 물과 보리로 만들었다며 설명해 주는, 한국남자가 좋다는 깜찍한 일본 아가씨가 아직도 미소를 짓게 한다. 기린맥주 제조과정 설명도 재미있었지만 깨끗한 공장과 큰 부지 옆 공원까지 둘러보니, 내가 다니는 사업장과 사뭇 비교되었다. 시원한 맥주를 시음하고 기분 좋게 버스에 다시 올랐다.

다음 도착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와불상이 있는 남장원이다. 발바닥도 어쩌나 크던지 내 키를 훌쩍 넘는다. 이 발바닥을 문지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 한참을 문질렀다. 다들 아픈 곳, 바라는 것이 많으신 것 같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히사야마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루를 마무리 한다.



9월 4일, 제24차 일·한·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에 참가했다. 공통어는 영어. 영어로 유창하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부러움과 반성의 마음이 오간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는 모습들이 멋지다. 나도 노력해서 저 자리에 한번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경청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일·한·중 중 단연 한국 발표자들의 영어발음이 세련되고 탁월하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끼 많은 우리나라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듯하다.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좋은 볼거리, 좋은 먹거리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음식점, 관광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하지만 그 친절 속에 감춰진 자기억제, 가식, 개인주의로 일본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휴가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강한 책임감, 성실함, 원칙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같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길가 도로 공사현장이 보인다. 밖에서 일하지만 일본 근로자들은 모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조금 놀랐다. 실내도 아닌 외부에서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에 정말 원칙대로 일하는구나 싶다. 우리나라도 원칙을 지키는 멋진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 같은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사업장에서도 원칙을 중요시 하는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나 자신부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부터 요동치며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

“실내도 아닌 외부에서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에  
정말 원칙대로 일하는구나 싶다.”

산업보건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